# 앵콜! 강진 불금불파, 다시 돌아온 김연자와 '아모르파티'

## 6월 20일~22일 작천 코끼리마늘꽃3Day 행사와 연계
## 농번기 마친 군민과 관광객 위한 특별한 이벤트 풍성

강진군이 오는 6월 20일 금요일과 21일 토요일, 강진 불금불파 앵콜 행사를 운영한다.

군은 당초 6월 7일자로 2025년도 강진불금불파 상반기 행사가 마무리됐지만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는 코끼리마늘꽃 3Day 행사와 연계해 농번기 군민 노고를 위로하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앵콜 운영 이벤트로 지난 2024년 하반기 10월, 불금불파 피날레 공연을 마치고 돌아갔던 아모르파티의 주인공, 김연자 가수를 6월 21일에 다시 초청해 다시 한 번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또한 '강진 잇 트립x불금불파' 먹거리 이벤트로 불금불파 행사장 방문 시 하멜촌 맥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지역가수와 EDM DJ 공연은 계속 이어지며 방문객의 재미를 위해 보물찾기, 랜덤 게임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불금불파 앵콜 운영은 농번기 군민 노고를 위로하고 20일부터 열리는 작천 코끼리마늘꽃 3Day 행사와 연계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이다"며 "특별히 작년 10월에 행사장을 화려하게 장식해 강진군을 널리 홍보해 준 '김연자' 가수의 특별 공연으로 군민들이 행복하고, 외부 방문객들에게 행복한 강진에서의 여행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오는 6월 21일 행사를 마지막으로 상반기 불금불파 행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9월 5일에 재개장하여 11월 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 광주 무등도서관, '시민참여 도서관학교' 연다

## 작은도서관 운영자·봉사자 등 대상 100명 선착순 모집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은 19일부터 26일까지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시민참여 도서관학교'를 운영한다.

작은도서관은 독서는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 곳곳에 위치한 공동체 공간이다.

이번 교육은 작은도서관이 변화하는 독서문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활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타지역 모범 운영 사례 분석, 지방보조금 관리 교육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정은 ▲작은도서관 홍보 기법과 사례(이선미 작은도서관 caru 관장) ▲지역을 만드는 힘, 작은도서관(김명희 여우네도서관 관장) ▲작은도서관 보탬e 시스템 교육(장현규 마을발전소 사무국장)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의 윤송현 작가 강연 등이다.

교육은 오는 19일(소회의실), 24일(대회의실), 26일(소회의실)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릴 예정이다. 정원은 19일과 26일은 각각 25명, 24일은 50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광주시 대표도서관 누리집(lib.gwangju.go.kr/rpst)의 '작은도서관 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도서관은 지난 2014년부터 미술작품 순회 전시, 시민참여 도서관학교, 독서의 달·문화의 달 행사 지원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수 기자

# 제2회 영암 숲숲환경영화제 출품 환경·생태 영화 공모

## 달빛포레스트 9월 26~28일 도갑사 등서 영화제 개최… 7월 7일까지 출품 접수

영암군 청년마을 '달빛포레스트'가 7/7일까지 '제2회 영암 숲숲환경영화제'에 상영할 작품을 공모한다.

9/26~28일 군서면 도갑사와 학산면 독천리에서 '다시 생동하는 힘'을 구호로 영화제를 개최하는 달빛포레스트가, 자연의 회복력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조명하는 작품을 공개 모집하고 나선 것.

특히, 올해 영화제는 지난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되살아나는 모습을 전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회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생태·자연·동물·지구·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한 영화이면 극,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 등 장르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고, 2025년 8월 1일까지 완성 되는 영화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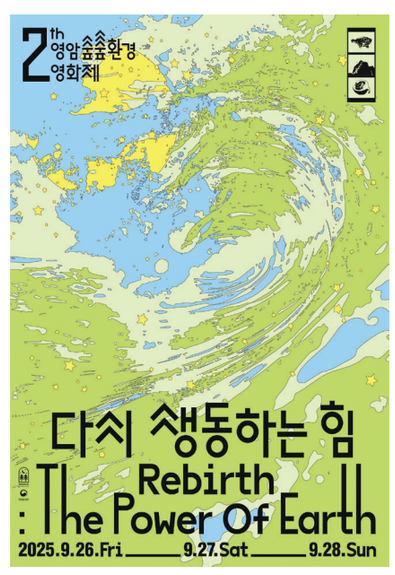
출품 신청은 영화제 공식 인스타그램 '영암 숲숲환경영화제(@sseff.official)' 프로필 링크에서 할 수 있고, 선정작은 8/1일 발표된다.

영화제 기간에는 선정작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생태 영화가 상영돼 관객들에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계기를 제공한다.

달빛포레스트는 지난해 영암읍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지 2번 창고에서 '폐허로 남은 공간'을 제1회 영암 숲숲 환경영화제'를 개최해 지역사회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았다.

달빛포레스트는 2024년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지역 생태환경 자원으로 문화 기획, 일거리 실험 등을 하고, 학산면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 '비움의 숲'도 운영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 한국전쟁, 그 속에서 피어난 우리 음악 이야기

## 6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에서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전남 진도군 소재 옥주골 창작소에서 2025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지난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운영하였다.

오는 6월 25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 공연은 국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전통예술의 보존과 전승을 넘어 국민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국악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 형태로 선보인다.

6월 25일 마지막 강의자로는 음악학 박사인 이경분이 무대에 오른다. "한국전쟁과 음악"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번 공연의 강의를 해줄 이경분은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 음악학 박사로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및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역임하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다양한 전쟁과 음악에 대해 〈수용소와 음악〉, 〈망명음악 나치음악〉 등 저서 발간하였다.

이경분이 들려줄 이야기는 한국전쟁과 음악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음악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전쟁 포로의 노래, 월북한 음악가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롭게 꾸밀 예정이다. 진도/오재명 기자

# 담양군, "비디오·캠코더 테이프 디지털로 변환해 드립니다"

## 과거를 현재로 잇는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 추진

담양군은 군민의 소중한 과거를 현재로 잇는 '아날로그 영상기록물 디지털 변환 서비스'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년 전의 추억, 2025년 한여름에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과거의 감동을 디지털 영상으로 되살려 가족과 함께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보관만 해오던 VHS, 6㎜, 8㎜ 캠코더 테이프 등을 디지털로 변환해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변환 대상은 돌잔치, 결혼식, 회갑연, 체육대회 등 개인 및 공동체의 기록이 담긴 영상테이프이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이며, 선착순 50명 접수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 대상은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변환할 테이프와 USB 또는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신분증을 지참해 담양군청 미래성장동 2층 기록관을 방문하면 된다.

또한, 변환된 영상을 군에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물 사본의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담양/이종옥 기자